

최근 수정일 : 2025. 10. 23.(목)

■ [공통: 독서·문학]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⑤ 08. ③ 0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①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⑤ 29. ④ 30. ③
 31. ③ 32. ④ 33. ③ 34. ②

[1~3] 독서

[1-3] 독서 이론,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 정도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이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 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고, 고정 횟수도 많았다.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데,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도 빈번히 일어난다.

[주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글을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눈동자는 그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은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3문단에서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이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독자가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밝힌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속될 때에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눈동자의 고정이 빈번히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다.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는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①에서 학생은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었다고 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면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일 것이므로, 이 단어들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았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독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으며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②에서 학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으므로,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 고정이 일어났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A]에서는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처럼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갈 때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중요하거나 생소한 단어를 읽을 때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에서 생소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약이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A]에서는 생소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다고 하였다. ⑥에서 익숙한 단어인 ‘대신하여’와 달리 생소한 단어인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고 했으므로,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익숙한 글을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이 변화한 것은 읽기와 관련한 지식이 많아지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꼼히 읽으면 단어에 대한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⑦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⑦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⑦의 이유로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아는 단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와 관련이 있다. ⑤ 3문단에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⑦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예술은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동일화에 저항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주제]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미학 이론

지문해설 : (나)는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의 미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하고 미적 체험을 비정형적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 영역에서의 동일화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도르노의 주장과 달리, 전위 예술이 아닌 작품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주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2문단에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나)는 2문단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

치 체계로 환원되는 동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아니라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 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글의 화제로 삼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3문단에서 쇠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를 들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 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을 재 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4문단에서 아도르노의 미 학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 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성,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 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 1문단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과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 의의로 제시하면서, 2~4문단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점,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 그의 미학 이론이 지닌 한 계를 지적하고 있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 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 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이다. 즉 양자는 상품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 라서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 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

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며, 대중 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난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때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데, 그 이유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즉 예술가의 주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에 비정형적인 형태만을 통해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정형적 형태는 도외시되며, 예술가의 주관도 재현되지 않는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즉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재현되지 않으며,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는 ⑦의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미적 체

험의 과정에서 예술가의 주관은 작품에 재현되지 않으며,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나)의 비판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 이므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대중 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즉 동일화된 상품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진정한 예술은 이러한 동일화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화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상품의 교환 가치라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므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전위 예술의 속성에 의해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따라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현대 사

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느꼈다. 따라서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으로, 작품에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볼 때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학생이 느끼는 익숙함은 A에 따르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 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 흘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의 ‘전락하다’의 사동사 이므로, ‘더 보태거나 빠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라는 뜻의 ‘맞바꾸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파하기] ② ⑥는 ‘따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동떨어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⑭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라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⑪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빼앗는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⑯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낸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찾아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10~13] 독서

[10~13] 사회, 유류분권

지문해설 : 이 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을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보다 가치가 적을 때에는 물건에 대한 지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물건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제] 유류분권의 개념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전부가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류분권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2문단에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지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나,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무상 취득자와 유류분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물건이 한 개일 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인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지분’은 하나의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 경우, 각자의 몫을 뜻한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물건에 대한 유류분권자의 지분도 커지게 된다. 이때 무상 취득자는 유류분권자에게 더 많은 몫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지분이 작아진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무상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 때 유류분권자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권자가 무상 처분된 물건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유류분의 정의는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상 처분된 재산도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한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③ 유류분의 취지는 피상속자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 ④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의 몫이 지분으로 반영되는 것은 유류분의 취지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련

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의 가치 변동까지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A 물건의 가치+B 물건의 가치) $\times 1/2$, 즉 $(300+100)/2=200$ 이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재산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된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A 물건에 대한 병의 지분은 $100/700$ 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3$ 이 아니라 $1/7$ 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700+100)/2$ 가 되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700이므로 병이 반환받을 수 있는 지분은 $300/700$, 즉 $3/7$ 이다.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면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은 $(300+100)/2$ 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100을 뺀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인 B 물건의 시가는 100이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은 200이고,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는 400이다. 갑의 재산 100은 두 경우 모두 병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4~17] 독서

[14~17] 기술,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고,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이때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이 실제 받는 값은 사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인 램프 인자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한편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을수록,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

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아진다.

[주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한 항목인 중요도와 적합도를 구하는 방법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땡핑 인자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다. 그 비율이 20%이면 땡핑인지가 0.8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수록 땡핑 인자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땡핑 인자는 커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러므로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2, 3문단에 따르면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특정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해당 웹 페이지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여기에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인덱스는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 목록이다.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는 중요도와 적합도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인덱스에 정렬된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해당 주제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음)를 간략하게 설명(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음)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옴)하면 ⑤이 높아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⑦을 높이려면 다른 많은 웹 페이지가 ⑦을 높이고자 하는 웹 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나열하거나 유명 검색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것은 ⑦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웹 페이지에 포함된 단어가 알파벳 앞 순서에 있는 것과 ⑦은 관련이 없다.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하는 것은 ⑦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⑦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체 글자 수를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많게 하면 ⑦은 오히려 낮아진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b와 e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된다. e의 중요도는 16이고, 이를 b와 c에 8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여기에 뎌핑 인자 0.5를 곱하면 b와 c가 e로부터 받는 값은 각각 4이다. 한편 b는 이렇게 받은 값을 a와 c에 2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데, 뎌핑 인자 0.5를 곱하면 b로부터 c가 받는 값은 1이 된다. c가 b와 e로부터 받은 값은 각각 1과 4이므로 이를 합한 중요도는 5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중요도는 d와 b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다. d로부터는 16에 뎌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는다. b는 e로부터 16에 뎌핑 인자 0.5를 곱한 8을 받아 이것을 a와 c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므로, b에서 a로 가는 값은 4에 0.5를 곱한 2가 된다. 따라서 a의 중요도는 8과 2의 합인 10이 된다. ② a가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고, b로부터 받는 값은 2이다. 따라서 두 값은 다르다.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c는 b로부터 8×0.5 의 값을 받게 된다. b의 중요도는 e로부터 받은 16×0.5 이기 때문에 두 값은 다르다.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e의 중요도 16은 a와 b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8에 뎌핑 인자를 곱하면 b의 중요도는 4가 된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①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정이 넘었다.’에서 ‘넘다’는 문맥상 자정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①와 가장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③ ‘경계를 건너 지나다.’의 의미이다. ④ ‘어려움이나 고비 따위를 겪어 지나다.’의 의미이다. ⑤ ‘일정한 곳에 가득 차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다.’의 의미이다.

[18~21] 문학

[18-21]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정수정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 극복 과정, 무용담 등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정수정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고 과감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 급제를 이루고 국가에 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남장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에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웅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서 중군장인 남편 장연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국

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장면에서는 주인공 정수정의 영웅적 면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효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수정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활약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한복’은 ‘정수정(대원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지휘하여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를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 후 본진에서 ‘정수정’이 무사에게 호령하여 ‘진량’을 처형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 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진량’은 ‘정 상서’가 간악한 인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황제’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진량’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정 상서’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 ②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를 통해 ‘중관’이 ‘황제’에게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관’이 ‘정 상서’의 집에 가서 ‘황제’의 명을 전하니 ‘정 상서’는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인 ‘진량’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⑤ 아들인 ‘장연’의 말을 듣고 ‘태부인’이 원통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내자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아뢰며 시어머니인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1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 앞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 상서’는 ‘중관’을 통해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다. ㉡은 ‘사관’이 ‘정 상서’에게 빨리 귀양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는 말이지, ‘정 상서’로 하여금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량’은 ‘정 상서’가 병으로 ‘황제’의 탄생일 조회에 불참하자 이를 이용하여 ‘정 상서’를 모함하고 있다. ③ ㉢ ‘정 상서’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정수정’은 혼절하게 되었다. ④ ‘정수정’이 침입한 ‘호왕’을 격파하자, ‘황제’는 ‘정수정’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를 좌각로 평북후를 봉해 ‘정수정’의 노고에 보답했다. ⑤ ㉣ 앞의 내용 중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

어 청주로 보내니라.'를 통해 '태부인'이 '원 부인'과 '공주'의 조언을 듣고 '정수정'에게 기주로 오라는 화해의 편지를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로 볼 때, '정수정'은 ④으로 전쟁에서 '장연'을 징계한 일로 인한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 것이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첩서'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이다. '정수정'은 '호왕'을 격파하고 승전하였다는 내용인 ⑤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올린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계'는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정 상서'가 귀양지인 절강에서 죽자 절강을 다스리던 관리인 '절강 만호'가 ②를 작성하여 '정 상서'의 죽음을 '황제'에게 보고한 것이다. ② 이 글에서 '절강 만호'는 '황제'와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로 볼 때, '정수정'은 승리를 보고하는 첩서를 먼저 올린 후 경사(수도)로 개선하여 '황제'를 직접 만난 것이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황제'와의 대면을 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대면을 피할 목적으로 ⑤가 작성된 것도 아니다. ⑤ '정 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은 '절강 만호'가 '부인'에게도 알렸고, '호왕'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황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정수정'을 맞아 치하하는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②와 ⑤ 모두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고민은 <보기>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면서도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인 '정수정'의 서로 다른 역할과 관련한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수정'의 답답한 심사는 시어머니인 '태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답답한 심사 때문에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정수정'이 '진량'의 귀양지를 물은 후 '한복'에게 철기를 거느리고 가서 '진량'을 결박하여 오라고 명하는 내용에서 부친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정수정'이 무사를 시켜 '진량'의 머리를 벤 후 제상을 차려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서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호왕'의 침입에 맞서 출전한 군대에서 아내인 '정수정'은 대원수이고, 남편인 '장연'은 그 부하인 중군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 '태부인'이 '장연'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모습은 자신의 며느리인 ‘정수정’이 군대의 지위를 내세워 남편인 ‘장연’을 함부로 대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정수정’이 기주로 갈 때 ‘흉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리고 이동하며, 용맹한 장수인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는 상황을 통해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주에 도착하여 ‘태부인’에게 예의를 보이고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 (가) 박두진, ‘별-금강산시 3’ / (나) 신경림, ‘길’ / (다) 백석, ‘편지’

지문해설 : (가)는 마치 한 편의 기행문처럼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1연과 2연에서는 금강산에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 곳을 떠나 점차 금강산의 자연에서 인간적 번뇌마저 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3연과 4연에서는 금강산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5연과 6연은 바다와 산이라는 공간에서 모두 별이 뜬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되는 과정

지문해설 : (나)는 길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길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내부로나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길’을 의인화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

지문해설 : (다)는 ‘당신’에게 자신의 체험을 친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두 이야기는 모두 ‘밤’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담겨 있다. 먼저 개인적 경험은 ‘당신’에게서 받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떠올린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로, 글쓴이에게 아름답지만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한다. 공동체적 경험은 복을 맞이하는 밤에 고향의 동네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을 하며 즐거워하던 이야기로, 야생적 생명력이 넘치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밤과 관련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상반된 감

정을 경험한 글쓴이의 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주제] 밤과 관련하여 슬픔과 즐거움을 환기하는 두 경험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가을날 곱게 떨어지는 ‘낙엽’을 ‘낙화’에 빗대고 있으며,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난만한 ‘꽃’에 빗대고 있다. 비유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는 ‘길’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 빗대고 있다. 마치 사람처럼 길을 바람직한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다)에서는 ‘나’가 좋아했던 ‘처녀’를 ‘수선’에 빗대고 있다. 자연물을 통해 ‘처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처럼 (가)~(다)에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어젯밤 머물렀던 어촌을 회상하며 오늘 산장에서의 경험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에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과 정월 대보름 무렵의 고향 모습을 회상하며 여인과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길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현재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을 뿐, 과거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활용하여 금강산에서 본 자연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영탄적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거나 특정 인물과 공간에서 활기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는 ‘-더니라’처럼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나)에는 ‘-는다’, (다)에는 ‘-ㅂ니다.’처럼 현재에도 흔히 쓰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가)에는 ‘풍설’, ‘낙엽’, (나)에는 ‘꽃’, (다)에는 ‘유월’, ‘육보름’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특정 대상과 시간을 드러낼 때 활용될 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상 사는 슬기’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생각과 관련이 있다.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은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고 여기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연과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금강산에 왔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1연에서는 ‘화안한 골 길’을 거쳐 왔으며 2연에서는 ‘백화 양상한 사이’를 지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는 화자가 금강산에 올 때 만난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5연에서 화자는 어촌에서 본 ‘바다의 별들’이 장엄하다고 느꼈고, 6연에서는 산장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 꽃처럼 난만하다

고 느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처럼 화자는 이 별들을 통해 자기 내면에 투영된 자연의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벼랑 앞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길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길이 이들에게 벼랑 끝에 세우는 좌절이나 시련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는 산장에서 바라본 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고, (나)의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는 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을 위해 길이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가)와 (나)의 각 구절에는 ‘별’과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2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걷던 시간으로, 그때 화자는 ‘아득히’, ‘머언 생각에 잠기’었다고 했다. 따라서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아직 샐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남은 시간으로, 글쓴이는 이 시간에 당신이 좋아 할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묻는다. 따라서 ‘이 남은 밤’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구월’은 고운 낙엽이 푸른 물 위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은 아니다.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이 보내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수선화와 관련한 인물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당신’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간은 아니다.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어촌에서 별이 장엄하게 뜬 모습을 보았던 시간으로,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육보름 즈음 복을 맞기 위한 기대감으로 둘뜬 고향의 밤으로,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은 아니다. ④ (가)의 ‘오늘밤’은 산장에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은 아니다.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과거에 좋아했던 여인을 처음 알게 되었던 날로, 글쓴이가 그녀와의 만남을 후회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은 아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5연에서는 화자가 ‘동해안’에서 바다에 허다하게 뜬 별들을 보며 장엄함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6연에서는 화자가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꽃과 같이 가득 떠 있음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과 ‘산장’은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유사한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안’에서 ‘산장’으로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한 것은 화자가 떠나온 곳이 멀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금강산으로 가는 ‘첨첨한 산길’을 거치는 오랜 시간 ‘머언 생각에 잠기어’ 있는 화자의 내면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이 되어 씻기우며’에서 ‘흰 돌’은 화자를 비유한 것으로, 이 돌이 ‘물소리’에 씻긴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모양이 만들어진 나무와 봉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자연에서 풍기는 장엄한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④ 3연에서 ‘훌 훌 훌’은 흰 구름이 날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4연에서 ‘쏴아’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흐르르르’는 낙엽이 낙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자연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26.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E]는 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 있음을 아는 사람, 즉 진정한 길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길이 제 뜻을 아는 사람에게 꽃과 그늘을 선사하는 모습을 나타낼 뿐, 길이 자신의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에서 ‘길’이 큰물을 내어 길을 끊음으로써 사람들이 길을 버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 구체적인 양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C]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B]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한 생각이다. ③ [C]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에게 슬기를 가르친다고 여기는데, [D]에서는 이런 생각이 진정한 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⑤ [F]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는 [A]에서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비된다.

2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글쓴이는 ‘육보름’과 관련해 자신이 고향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한 고향의 즐거운 풍속을 소개할 뿐,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이처럼 ‘당신’을 편지의 수신인처럼 설정하여 직접 말하듯이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과거에 좋아했던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녀가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얹어 시들어 간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사랑했던 여인과 관련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거나 ‘부역의 솔뚜껑을 들고 오’는 것은 일탈 행위이지만, 이는 육보름이라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새악시 처녀들’에게 잠시 용인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⑤ ‘자깔자깔’은 복 맞이를 하는 ‘새악시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이고, ‘끼득깨득’은 육보름에 ‘새악시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의 즐거움과 쾌감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다섯 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야간 통행금지 상황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주인공 ‘나’(철이)는 겨드랑이에 통증을 느끼고, 집 밖에 나가면 이러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금지된 밤 산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며, 그러면 서 그는 서울 도심 곳곳을 찬찬히 관찰한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벌이는 기괴한 매스 게임을 구경하고 5·16 군사 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주제] 1960년대의 억압적 시대 상황과 자유의 문제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 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는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쑤신 증상 때문에 제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30.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⑦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⑦은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⑦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⑦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⑦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⑦은 겨드랑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⑦, ⑦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⑦, ⑦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

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난 점을 고려하면,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윗글에서 ‘날개’가 ‘귓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돌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박인로, ‘소유정가’

지문해설 : (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연시조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임금과 속세의 정치를 생각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의식 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훗날 윤선도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삶

지문해설 : (나)는 17세기 무렵 박인로(1561~1642)가 정구(1543~1620)와 함께 대구에 머물렀을 때 소유정(小有亭)이라는 누정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 작품이다. 다양한 비유와 고사를 활용하여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으며, 그 속에서 뱃놀이와 낚시를 하며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⑩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닻’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⑦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⑩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좋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③ ⑨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흘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⑪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 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맘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앓’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둑단배가 돌아옴)을 돋는 자연 현상으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파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끓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베드나무 가지에 끓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④ 40. ⑤ 41. ② 42. ② 43. ① 44. ③
45. ①

[35~36] 언어

[35~36] 합성 용언의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명사 + 동사’, 명사 + 형용사’로 구성된 합성 용언의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특성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구성 요소 간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적 측면에서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합성 용언과 본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합성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나는 학구열에 불타다’의 ‘불타다’와 같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제]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른 합성 용언의 분류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뒤돌아’는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②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값싸게’는 ‘값이 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② ‘눈부신’은 ‘눈이 부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밤새워’는 ‘밤을 새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앞서서’는 ‘앞에 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 동일하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④의 ‘담쌓다’는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야식과’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④의 ‘목말라’는 ‘목이 마르다.(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② ⑥의 ‘점찍어’는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는 어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간식으로’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④의 ‘녹슬지’는 ‘녹이 슬다.(쇠붙이가 산화하여 빛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려두어 낡거나 무디어지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가 성립하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⑨의 ‘눈뜨게’는 ‘눈을 뜨다.(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잘 알지 못했던 이치나 원리 따위를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으며, ‘최신 이론에’와 같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37. 용언

정답해설 : ④의 ‘(갈증이) 가셨겠구나’는 ‘가시- + -었- + -겠- + -구나’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④의 ‘즐거우셨길’은 ‘즐겁- + -(으)시- + -었- + -기 + ㄹ’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으)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전성 어미이다. 이때의 ‘ㄹ’은 목적격 조사이다. ② ⑥의 ‘샜을’은 ‘새- + -었- + -을’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은 전성 어미이다. ③ ⑨의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거 + -롭- + -(으)시- + -겠- + -지만’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으)시-’,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연결 어미이다. ⑤ ⑩의 ‘다다른’은 ‘다다르- + -ㄴ’으로 형태소가 분석되며, 이때의 ‘-ㄴ’은 전성 어미이다. ⑩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38. 부정 표현

정답해설 : ⑦의 ‘고요하지 않다’는 형용사 ‘고요하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⑨의 ‘비가 안 오다’는 무정물 ‘비’가 주어로, 동사 ‘오다’가 서술어로 쓰이며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⑦, ⑨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⑦은 동사 ‘발달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⑨은 무정물 ‘옷’이 주어로, 동사 ‘도착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② ⑦은 형용사 ‘어렵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⑨은 유정물 ‘저’가 주어로, 동사 ‘잇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③ ⑦은 형용사 ‘궁금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⑨은 유정물 ‘동생’이 주어로, 동사 ‘가져가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④ ⑦은 동사 ‘놀라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며, ⑨은 무정물 ‘전기’가 주어로, 동사 ‘통하다’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39.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곁늙다[건늑따]’에서는 ‘곁’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ㄷ’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밖만[방만]’에서는 ‘밖’의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② ‘폭넓다[퐁넓따]’에서는 ‘폭’의 ‘ㄱ’이 비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값’의 ‘ㅂ’이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을 받아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ㅁ’으로 발음된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에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

[40~42] 매체

40. 뉴 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화면 3]에는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의 내용 중 검색 어구가 버스 광고와 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버스 광고의 장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색의 결과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⑦은 학생이 자신이 다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즐겨찾기 목록’에 있는 1장과 3장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⑨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 학생은 ⑨을 이용하여 대중교

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하였다. ③ ⑤은 책의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용한 사전 찾기 결과이다. 사전 찾기 결과가 본문과 한 화면에 제시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④ ⑥은 화면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화면 2]에서는 ‘100% 화면’이 [화면 3]에서는 ‘120%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져서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해설 : (나)의 [화면 2]에서는 버스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는 모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메모 1’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화면 2]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메모 2’에서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를 선택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메모 3’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겠다고 한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메모 3’에서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려는 것은 [화면 3]의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⑤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이는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임 광고’를 부각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짧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앞에 열거된 내용을 고려할 때, ②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④의 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추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④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

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①의 앞에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설명이, ①의 뒤에는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장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①가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그’는 지시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버스 광고’를 가리킨다. 따라서 ①가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43~45] 매체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가)에서는 교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특정 다수’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많은 수’를 뜻한다. (나)에서는 ‘민지’, ‘상우’, ‘보미’라는 특정된 개인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민지’의 발화 중 ‘지금 보미랑 과제 때문에 다른 대화방에서 얘기 중인데’라는 내용을 통해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진행자는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 주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⑦에서 ‘아까 학교에 얹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는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지혜가 학교에 얹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것이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의견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⑦의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라는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민지’를 통해 대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⑦은 두 팔을 들어 큰 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민지’는 ⑦을 활용하여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라는 ‘상우’

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④ ⑩에서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는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한 것이고,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는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⑤ ⑪에서는 ‘상우’가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투표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들에게 촬영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45. 소통 목적 고려

정답해설 : (나)에서는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는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파하기] ②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②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상우’의 발화 중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 ‘보미’의 발화 중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와 (가)에서 ‘민지’가 신청한 노래 제목 ‘다시 만날 우리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는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 자막은 내가 넣을 게.’라는 ‘보미’의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